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대비

## 이감 국어 모의고사 25회

수능 출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검증된 퀄리티의  
이감 제작 문항 제공

실전과 동일한 형태의  
시험지 구성과 OMR 카드로  
실전 연습에 최적화

# 언어와 매체

# 시제

# 연어와 매치

---

제1차 모의고사 ..... 7p	제14차 모의고사 ..... 85p
제2차 모의고사 ..... 13p	제15차 모의고사 ..... 91p
제3차 모의고사 ..... 19p	제16차 모의고사 ..... 97p
제4차 모의고사 ..... 25p	제17차 모의고사 ..... 103p
제5차 모의고사 ..... 31p	제18차 모의고사 ..... 109p
제6차 모의고사 ..... 37p	제19차 모의고사 ..... 115p
제7차 모의고사 ..... 43p	제20차 모의고사 ..... 121p
제8차 모의고사 ..... 49p	제21차 모의고사 ..... 127p
제9차 모의고사 ..... 55p	제22차 모의고사 ..... 133p
제10차 모의고사 ..... 61p	제23차 모의고사 ..... 139p
제11차 모의고사 ..... 67p	제24차 모의고사 ..... 145p
제12차 모의고사 ..... 73p	제25차 모의고사 ..... 151p
제13차 모의고사 ..... 79p	

# 언어와 매체,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 1

### 이렇게 대비하세요 : **고득점 전략**

'언어와 매체'는 고득점을 위한 기본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에서 '언어'는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었던 개념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선지별로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고 수험생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지문이 출제되어 다소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개념을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판단 경로를 명료화**해야 합니다. '매체'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매체' 영역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 유형을 꾸준히 익혀** 실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 2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실전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는 **이감국어교육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언어와 매체' 모의고사**를 시험지 형태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에 최적화된 25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접함으로써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회차마다 수록된 OMR 카드에 정답을 마킹하는 시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전 감각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전 연습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시간 관리 연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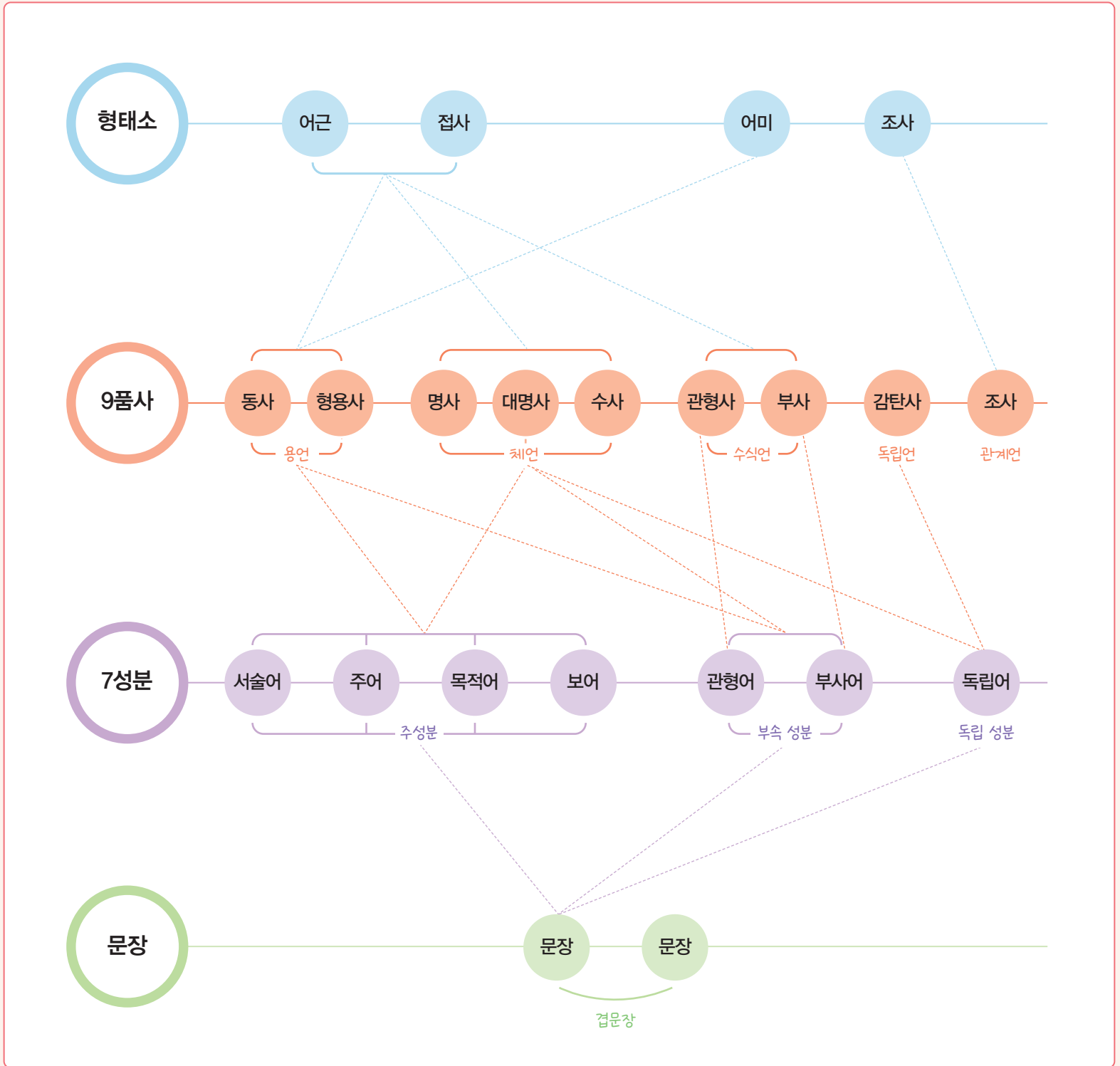
## 3

### 이렇게 도약하세요 : **속도와 정확도**

'**자율 학습 체크**'를 활용하여 문제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점검하며, 문제 풀이와 OMR 마킹 시간을 염두에 두고 권장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연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문항 유형에 유의하며 정답 및 해설을 꼼꼼히 읽어 봅니다. 이후에 스스로 **취약한 유형을 파악**해 보세요. '**자가 점검표**'를 통해 문제를 틀린 원인이 사고의 오류인지, 시간 부족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오류로 인해 틀린 문제는 정답 및 해설을 꼼꼼히 읽어 사고를 교정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는 문제 푸는 숙련도를 높여 시간 단축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약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통해 **문제 풀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언어 개념



### 매체 출제 경향



'매체' 영역은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다루며, 더 나아가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생산자 및 수용자의 태도를 다룬다. 2025학년도 대수능까지만 해도 매 평가원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보여 주려는 출제 경향이 드러났다면, 2026학년도 대수능에서는 등장한 매체 자료들이 모두 기출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 것들이었다. 이에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데에 따른 낯설이 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루 파악해 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항 구성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으니 이를 체화해 두면 향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제1차 모의고사

N제

# 제1차

언어와 매체

## 모의고사 자율 학습 체크

○ 학습 시간 / 13분    ○ 채점 결과 / 24점

### OMR 카드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선택 과목	
문번	답 란
선 택 과 목	35 ① ② ③ ④ ⑤
	36 ① ② ③ ④ ⑤
	37 ① ② ③ ④ ⑤
	38 ① ② ③ ④ ⑤
	39 ① ② ③ ④ ⑤
	40 ① ② ③ ④ ⑤
	41 ① ② ③ ④ ⑤
	42 ① ② ③ ④ ⑤
	43 ① ② ③ ④ ⑤
	44 ① ② ③ ④ ⑤
45 ① ② ③ ④ ⑤	

### 제1차 모의고사 체크리스트

| 정답 및 해설 | 2쪽

영역	문번	문제 유형	배점	체감 난이도	자가 점검표		
					정답 맞힘	완전 틀림	시간 부족
언어	35	동화에 대한 이해	2	上 中 下			
	36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	2	上 中 下			
	37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 구분	2	上 中 下			
	38	단어의 상하 관계 이해	2	上 中 下			
	39	조건에 맞는 문장 파악	3	上 中 下			
	매체·언어	40	텔레비전 뉴스의 자막 활용 이해	2	上 中 下		
41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 표현 이해	2	上 中 下			
42		뉴스의 비판적 수용 이해	3	上 中 下			
43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이해	2	上 中 下			
매체	44	라디오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 파악	2	上 中 下			
	45	라디오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이해	2	上 中 下			

### 💡 <언어와 매체 N제> 200% 활용법

- 1 문제 풀이 후 OMR 카드에 정답 마킹
- 2 문제 풀이 소요 시간과 점수를 채점하여 기록
- 3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느낀 체감 난이도를 上 / 中 / 下 중에 표시
- 4 정답을 맞힌 것은 '정답 맞힘'에, 확실히 틀린 것은 '완전 틀림'에,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것은 '시간 부족'에 표시
- 5 '완전 틀림' 표시: 정답 및 해설을 여러 번 꼼꼼하게 읽기 / '시간 부족' 표시: 반복 학습을 통해 시간 단축하기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 한다. 동화에는 조음 방법이 동화되는 것이 있고, 조음 위치가 동화되는 것이 있다.

조음 방법 동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해당 파열음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단, ‘ㅇ’은 음절 첫소리에서 소리 나지 못하므로 다른 비음과 달리 앞말을 비음으로 만들지 못하며, 비음이 파열음에 선행하는 경우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이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부 한자어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대신, ‘ㄹ’이 앞에 있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ㄴ]이 되는 예외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조음 방법 동화의 예로 볼 수 있다.

조음 위치 동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자음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 시기부터 나타났는데, 형태소 경계에서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현대 국어와 달리 근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이에 근대 국어 이후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와 결합된 음절은 외래어를 제외하면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견디다’와 같이 일부 현대 국어 단어에 ‘디, 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단어들의 모음이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모음이 아니라 ‘ㅣ’나 ‘ㅣ’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견디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그 형태가 ‘견되다’였기 때문에 구개음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디, 티, 되, 티’를 음절로 가지고 있던 단어들은 시간이 지나며 현대 국어에서 ‘디, 티’를 음절로 갖게 되었다.

3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겹옷’의 발음 과정에서 파열음 ‘ㅂ’이 비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인접한 비음이 없기 때문이겠군.
  - ② ‘줄넘기’는 발음 과정에서 앞에 오는 유음 ‘ㄹ’에 의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조음 방법이 바뀌게 되겠군.
  - ③ ‘생산량’을 발음할 때에는 유음 ‘ㄹ’의 조음 방법이 비음 ‘ㄴ’의 조음 방법과 같아지는 음운 현상이 발생하겠군.
  - ④ ‘턱밑’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인해 그 파열음과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군.
  - ⑤ ‘동백꽃’에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비음과 달리 비음 ‘ㅇ’ 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굳히다[구치다], 느티나무[느티나무]  
마디[마디], 밭이랑[반니랑], 붙여[부처]

- ① ‘굳히다’를 [구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② 현대 국어의 ‘느티나무’에 ‘티’가 쓰이는 것은, ‘느티나무’가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기 때문이다.
- ③ ‘마디’를 [마지]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④ ‘밭이랑’을 [바치랑]이 아닌 [반니랑]으로 발음하는 것은, ‘밭이랑’의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 ⑤ ‘붙여’를 [부처]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이 아닌 자음 ‘ㅌ’이 반모음 ‘ㅣ’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37. 밑줄 친 단어가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지칭 대상의 성격에 따라 모르는 사람, 물건, 장소, 때 따위를 가리키는 ㉠ 미지칭 대명사,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장소, 때 따위를 가리키는 ㉡ 부정칭 대명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 이걸 만든 사람은 어디 있나요?  
㉡: 그녀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는다.
- ② ㉠: 물건은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어.  
㉡: 그 가방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해?
- ③ ㉠: 이번 일들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  
㉡: 그때는 아무나 붙들고 울고 싶었어.
- ④ ㉠: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궁금해.  
㉡: 저기 파란 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⑤ ㉠: 실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다.  
㉡: 너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서 들었느냐?

# 언어와 매체

정답 및 해설

N제

# 연어와 매치

제1차 모의고사 ..... 2p	제14차 모의고사 ..... 54p
제2차 모의고사 ..... 6p	제15차 모의고사 ..... 58p
제3차 모의고사 ..... 10p	제16차 모의고사 ..... 62p
제4차 모의고사 ..... 14p	제17차 모의고사 ..... 67p
제5차 모의고사 ..... 18p	제18차 모의고사 ..... 71p
제6차 모의고사 ..... 22p	제19차 모의고사 ..... 75p
제7차 모의고사 ..... 26p	제20차 모의고사 ..... 79p
제8차 모의고사 ..... 30p	제21차 모의고사 ..... 83p
제9차 모의고사 ..... 34p	제22차 모의고사 ..... 87p
제10차 모의고사 ..... 37p	제23차 모의고사 ..... 91p
제11차 모의고사 ..... 41p	제24차 모의고사 ..... 96p
제12차 모의고사 ..... 45p	제25차 모의고사 ..... 100p
제13차 모의고사 ..... 50p	

# N

## 제 1 차 실전 모의고사

언어	35 ⑤	36 ④	37 ①	38 ⑤	39 ①
언어 통합	40 ③	41 ③	42 ③	43 ②	
매체	44 ①	45 ④			

### 35-39 언어

#### N 35 동화에 대한 이해

답 ⑤

##### 정답 설명

- ⑤ ‘동백꽃’에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비음과 달리 비음 ‘ㅇ’ 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군.  
앞에 어떤 비음이 오더라도 뒤의 파열음은 비음으로 바뀌지 X
- ‘동백꽃’에서 비음 ‘ㅇ’은 파열음 ‘ㅂ’에 선행해 있다. 비음이 파열음에 선행하는 경우, 앞에 어떤 비음이 오더라도 뒤의 파열음은 비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비음과 달리 비음 ‘ㅇ’ 뒤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오답 설명

- ① ‘겹웃’의 발음 과정에서 파열음 ‘ㅂ’이 비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인접한 비음이 없기 때문이겠군.  
‘웃’의 ‘ㅇ’은 소릿값이 없는 형식 자음임
- 비음화는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그 파열음과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겹웃’에서는 파열음 뒤에 위치한 비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문에 따르면 ‘ㅇ’은 음절 첫소리에서 소리 나지 못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음절 첫소리에서 소리 나지 못한다는 것은, ‘겹웃’의 ‘ㅇ’은 곧 비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웃’은 ‘ㅇ’과 ‘ㅂ’이라는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여기서의 ‘ㅇ’은 소리가 없이 표기만 있는 것이다.
- ② ‘줄넘기’는 발음 과정에서 앞에 오는 유음 ‘ㄹ’에 의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조음 방법이 바뀌게 되겠군.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뀜
- ‘줄넘기’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ㄹ]로 바뀌어 [줄럼기]로 소리 난다.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그 조음 방법이 유음으로 바뀌었으므로 해당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생산량’을 발음할 때에는 유음 ‘ㄹ’의 조음 방법이 비음 ‘ㄴ’의 조음 방법과 같아지는 음운 현상이 발생하겠군.  
유음 ‘ㄹ’이 비음 ‘ㄴ’과 같이 비음으로 바뀜
- 한자어 ‘생산량’은 [생산량]으로 소리 난다. 유음화가 일어나는 대신, 유음 ‘ㄹ’이 앞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그 조음 방법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므로 해당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턱밑’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인해 그 파열음과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군.  
파열음 ‘ㄱ’과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인 ‘ㅇ’으로 바뀜
- 비음화가 일어날 때 파열음은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게 된다. ‘턱밑’에서 비음 ‘ㅇ’의 영향을 받은 파열음 ‘ㄱ’은 같은 위치의 비음 ‘ㅇ’으로 바뀌어 [텀밎]으로 소리 난다.

#### N 36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

답 ④

##### 정답 설명

- ④ ‘밭이랑’을 [바치랑]이 아닌 [반니랑]으로 발음하는 것은, ‘밭이랑’의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 X
-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으로 교체되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밭이랑[반니랑]’에서는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구개음화의 조건 중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랑’은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둑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의미하는 실질 형태소이다.

##### 오답 설명

- ① ‘굳히다’를 [구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형태소 경계에서만 구개음화가 일어남
-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현대 국어의 ‘느티나무’에 ‘티’가 쓰이는 것은, ‘느티나무’가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느티나무’로 구개음화의 대상 X
- ‘티’가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느티나무’가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느티나무’는 근대 국어 시기에 ‘느티나무’로 나타났다.
- ③ ‘마디’를 [마지]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임 → ‘마디’는 하나의 형태소
-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마디’는 [마디] 그대로 발음한다. ‘마디’를 [마지]로 발음하려면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 ⑤ ‘붙여’를 [부처]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이 아닌 자음 ‘ㅌ’이 반모음 ‘ㅣ’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음 위치
- 구개음화는 조음 방법 동화가 아닌 조음 위치 동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붙여’를 [부처]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이 아닌 자음 ‘ㅌ’이 반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 N 37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 구분

답 ①

##### 정답 설명

- 미지칭 대명사
- ① ㉠: 이걸 만든 사람은 어디 있나요?  
 ㉡: 그녀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는다.  
부정칭 대명사
- ‘이걸 만든 사람은 어디 있나요?’의 ‘어디’는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고, ‘그녀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는다.’의 ‘어디’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꼭 집어 달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오답 설명

- 부정칭 대명사
- ② ㉠: 물건은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어.  
 ㉡: 그 가방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해?  
미지칭 대명사
- ‘물건은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어.’의 ‘언제’는 때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부정칭 대명사이고, ‘그 가방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해?’의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부정칭 대명사  
 ③ ㉠: 이번 일들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  
 ㉡: 그때는 아무나 붙들고 울고 싶었어.  
 부정칭 대명사  
 → '이번 일들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와 '그때는 아무나 붙들고 울고 싶었어.'의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미지칭 대명사  
 ④ ㉠: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궁금해.  
 ㉡: 저기 파란 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지칭 대명사  
 →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궁금해.'와 '저기 파란 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의 '무엇'은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부정칭 대명사  
 ⑤ ㉠: 실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다.  
 ㉡: 너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서 들었느냐?  
 미지칭 대명사  
 → '실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이다.'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고, '너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서 들었느냐?'의 '누구'는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 N 38 단어의 상하 관계 이해

답 ⑤

#### 정답 설명

⑤ ㉠, ㉡, ㉢  
 → ㉠ 상하 관계에서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다. 제시된 표를 보면, '초밥'은 '일식'보다 하의어에 해당한다. 즉 하의어 '초밥'은 상의어 '일식'의 의미 자질들을 전부 가지면서 예컨대 [밥]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지므로 하의어 '초밥'은 상의어 '일식'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 '불고기'와 '소바'는 모두 '음식'의 하의어이다. 즉, 두 단어 모두 '음식'이 가진 의미 자질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 제시된 표를 보면, '한식'은 '떡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되지만,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의어가 된다.

#### 오답 설명

① ㉠, ㉡ ② ㉠, ㉡ ③ ㉠, ㉡ ④ ㉠, ㉡, ㉢  
 → ㉠ 상의어와 하의어 중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하의어이다. 제시된 표를 보면, '리소토'와 '초밥'은 서로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 상하 관계에서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즉, 하의어인 '양식'은 상의어인 '음식'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하의어인 '파스타'는 상의어인 '양식'을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 N 39 조건에 맞는 문장 파악

답 ①

#### 정답 설명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 → 조건 ② 짧은 부정 표현 → 조건 ③  
 ①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은 키가 안 크던데.  
 관형사절 → 조건 ① 서술절 → 조건 ①  
 →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한 문장은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은 키가 안 크던데.'이다. 우선 해당 문장에는 관형사절 '오늘 이곳에 오신'과 서술절 '키가 안 크던데'가 쓰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또 '오신'에 주체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마지막으로 서술절 '키가 안 크던데'에 짧은 부정 표현인 '안'이 쓰여 세 번째 조건도 충족했다.

#### 오답 설명

명사절 → 조건 ①  
 ② 말도 없이 이곳을 떠나기는 싫으시겠지.  
 부사절 → 조건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 조건 ②  
 → '말도 없이 이곳을 떠나기는 싫으시겠지.'에는 부사절 '말도 없이'와 명사절 '이곳을 떠나기'가 쓰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또 '싫으시겠지'에 주체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짧은 부정 표현이 쓰인 안긴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짧은 부정 표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안긴문장 X) → 조건 ② X '-시-' → 조건 ②  
 ③ 제가 빌려 온 책을 할머니께서 못 읽으셨어요.  
 관형사절 → 조건 ①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 → 조건 ②  
 → '제가 빌려 온 책을 할머니께서 못 읽으셨어요.'에는 관형사절 '제가 빌려 온'만이 쓰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할머니께서'와 '읽으셨어요'에 주체 높임 표현의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못 읽으셨어요'의 '못'은 짧은 부정 표현은 맞지만 안긴문장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객체 높임 → 조건 ② X 짧은 부정 표현 → 조건 ③  
 ④ 내가 모시고 온 선생님은 그곳에 안 갔음이 분명해.  
 관형사절 → 조건 ① 명사절 → 조건 ①  
 → '내가 모시고 온 선생님은 그곳에 안 갔음이 분명해.'에는 관형사절 '내가 모시고 온'과 명사절 '선생님은 그곳에 안 갔음'이 쓰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모시고'는 객체 높임 표현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명사절 '선생님은 그곳에 안 갔음'에 짧은 부정 표현인 '안'이 쓰여 세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 → 조건 ② 짧은 부정 표현 (안긴문장 X) → 조건 ② X  
 ⑤ 삼촌은 마음씨는 착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  
 서술절 → 조건 ① 관형사절 → 조건 ①  
 → '삼촌은 마음씨는 착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에는 서술절 '마음씨는 착하시지만'과 관형사절 '많은'이 쓰여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또 '착하시지만'에 주체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안 만나'의 '안'은 짧은 부정 표현은 맞지만 안긴문장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40-43 매체·언어 통합

### N 40 텔레비전 뉴스의 자막 활용 이해

답 ③

#### 정답 설명

③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라하여 기사가 설명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달라지지 않음  
 → 기자는 우리나라의 의류 폐기물 현황에 대해 2020년에는 8만 톤, 2021년에는 12만 톤을 넘었다며 그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제시된 화면에는 2021년의 옷 이미지가 2020년의 것보다 커진 것을 통해 의류 폐기물의 증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아래 제시된 글자의 크기와 굵기는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

#### 오답 설명

① ㉠은 뉴스의 주제를 제시하여 해당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었다.  
 → '환경을 위협하는 의류 폐기물'은 해당 뉴스의 주제이다. 이 자막은 뉴스가 이어지는 동안 화면 상단에 고정되어 해당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